

구자룡 · 이승호 조 당선

87.3% 찬성 ... 문과대 등 4개 학생회 구성

제36대 총학생회 선거결과 '자유주의 시대, 일만이천의 어깨동무'를 모토로 한 구자룡(야간강좌 영문4)·이승호(국교4) 조가 87.3%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단선으로 진행된 총학생회 투표결과 총 유권자 1만 1천691명 가운데 6천59명이 참여해 51.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 중 5천305명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구자룡·이승호 조는 "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 학내 사안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관련기사 2면(보도) 이번 투표결과 사법대는 80.53%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공대는 33.79%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다.

이와 함께 단선으로 진행된 단과대 학생회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문과대=최이평(사2)이 유권자 1천161명 중 693명이 참여해 59.69%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611표(88.17%), 반대 49표(7.07%)를 얻어 당선 △경영대=김정수(국제통상3)이 유권자 1천286명 중 643명이 참여해 5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577표(89.74%), 반대 59표(9.18%)를 얻어 당선 △사법대=이중관(역교3)·김용환(국교3)

조가 유권자 1천17명 중 819명이 참여해 80.5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769표(93.89%), 반대 48표(5.86%)를 얻어 당선 △야간강좌 총학생회=김윤경(정통3)·채정석(회계3) 조가 유권자 1천401명 중 744명이 참여해 53.1%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694표(93.28%), 반대 42표(5.65%)를 얻어 당선됐다.

한편 이번 선거는 4개 단과대만 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투표율 저조가 예상됐지만 처음으로 중도 앞에 설치한 투표소에서 850여명이 선거에 참여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중도 앞에 설치된 투표소

에 선거인명부가 마련돼있지 않아 첫째날에는 다른 장소에서 투표한 후 다시 투표하는 중복투표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수육(화공4) 의장은 "중도에 투표할 것을 권장하는 만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투표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문제점을 보완하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등 선거를 치르지 않은 9개 단위는 다음해 3월 보궐 선거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신입생 예비교육 접수 '교양 세미나' 등 4과목

2004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교육이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동국 새내기 교양 세미나'는 1, 2차 수시모집 합격생과 재외국민 등 특별전형 합격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일(25일)부터 28일까지 교양교육운영실이나 본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성적은 Pass제로 평가될 예정이다.

2차에 진행되는 과목은 '동국 새내기 교양 세미나'를 비롯해 정규과목인 △컴퓨터 활용과 실습 I △영어회화 I △실용영어 I으로 다음달 29일부터 3일간 교양교육운영실이나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강의는 다음해 1월 12일부터 16일 동안 진행되며 정규과목의 경우 과목당 1학점씩 절대평가로 학점이 부여된다. 각 과목당 수강료는 4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 교양교육운영실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활에 일찍 적응하고 남은 고등학교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정의 손길 ... '불우이웃돕기 사랑나눔 비자회'가 지난 21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기부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조계종, 매년 1억원 장학금 기탁

조계종 총무원(원장=법장)이 다음 해부터 매년 1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할 것을 약정했다. 법장 총무원장은 지난 17일 총무원장실에서 흥기삼(국어국문학) 총

장에게 장학금 약정서를 전달하고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 액수와 장학 수혜자 인원 등 세부적 사항은 논의를 거쳐 확

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이 종합대학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국학원 서정대 이사장 임적

18일 삼막사에서 ... 총무원장·중앙총회 의장 등 역임

동국학원 제20대 서정대 이사장이 지난 18일 새벽 5시 안양 삼막사에서 세남 67세, 법남 42세로 임적했다.

서정대 이사장은 지난 1991년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해 본교와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해 12월 24일 오죽원 이사장에 이어 제20대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취임 초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계에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한다"며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학교 일을 결정하지 않고 이사들과 상의하겠다"며 동국학원 운영에 대한 열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962년 출가해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장, 중앙총회 의장 등 요직을 지내며 종단을 안정시키고 재정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았다. 영결식은 지난 22일 용주사에



본교 불상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분향하는 모습. 최성민 기자

서 진행됐으며 지난 19일부터 학내 불상 앞을 비롯해 경주캠퍼스, 부속병원 등 6곳에 분향소가 마련됐다.

한편, 학내·외는 후임 이사장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동국학원 이사회의 이사 회를 소집할 주체가 없어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상태이며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이사회 개최 여부를 확정지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아직 후임 이사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 개최 전후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사회 개최를 비롯해 후임 이사장에 대한 논의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2004학년도 대학경영방침 확정

교육·대학운영 등 분야별 추진 과제 선정

기획인사처(처장=이영환·경제학) 기획심사팀이 2004학년도 △교육 △연구 △대학운영 등 각 분야별 중점추진 방향과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교육분야는 '양질의 교육제공'을 골자로 하며 △인격형성과 사회수요를 고려한 교양교육과정 개편 △전공교육과정 심화 △강의평가 내실화와 학업지도 강화 △전일교수 충원 등이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연구분야는 '연구기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특성화 분야 중점 지원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 개발 △선진학과 집중에 의한 부설연구소 구조조정 △교원임직평가 및 교원 승진 제도 개선 △산학협력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대학운영분야는 '효율적 대학운영'을 골자로 △목표관리 시스템 정착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 강화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 △취업대책 강화 등이 설정됐다.

차기년도 대학경영방침은 이번엔 처음 수립한 것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재정적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업그레이드 동국 프로그램'과도 부분적으로 연계될 전망이다.

기획심사팀은 대학경영방침에 따른 각 부서별 주요정책 사업계획서를 다음달 초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농구대잔치 출전 중앙대·단국대와 경기

농구부(감독=최성호)가 오늘(24일) 오전 12시 20분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중앙대와 경기를 갖는다.

'우리은행배 2003농구대잔치'에 출전중인 농구부는 현재까지 총 3 경기를 치른 결과 1승 2패를 기록 중이며 앞으로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예선 마지막 경기는 단국대와 내일(25일) 오후 3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농구부의 한 관계자는 "남은 경기가 중요한 만큼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해 2학기 연구년 신청 오는 28일까지 연구개발팀

연구처(처장=여인형·화학) 연구개발팀이 2004학년도 2학기 연구년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교원 △신청 연구년 기간 중 소속 학과의 결원이 없는 교원 등이다.

신청은 학과주임 교수와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년 신청서 1부 △연구계획서 1부 등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연구 기간은 1년이며 선정된 교원에게는 △기초급 △상급 △정

보리수

일대사인연 (一大事因緣)

동국학원 법인이사장 정대스님이 지난 18일 임적(入寂)했다. 정대스님은 생전 스스로도 숨기지 않았듯 '최고의 행정승'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런만큼 그의 행보에는 항상 '정치적 배경'을 전제하는 기발함이 배어 있었고, 세간에서는 무수한 해석을 낳았다. 때로는 불교발전에 한 획을 그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작용했고, 때로는 불교위상에 치명타를 안겨주기도 했다. 휴연 세사사 출신 인연을 뒤로하고 생사거리가 틀어 아닌 경계에 들어섰으니, 삼가 극락왕생을 빌어마지 않는

다. 이제, 세속적인 감회와 비감을 접고 학교를 돌아보자. 최고 어른인 이사장 자리가 유고됐으니, 학교운영에 적잖은 우려와 변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이사장 선출을 놓고 불교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갑론을박 무수한 하마평이 회자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불교계와 사회에서 동국대가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작지 않다. 그것은 한국불교의 위상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장의 자리는 학

교경영의 수장이요 교육기관의 사령탑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사장의 자리는 조계종단 권력구도의 한 획을 점유했고, 그 다름이 거세거나 복잡해질수록 학교의 위상은 나락에 처한 게 사실이다. 또다시 과거의 권력다툼을 예견케 하는 일부 이사 및 종단인사들의 움직임과 학교행정에 상대적 영향을 미치는 학내인사들의 행보를 예의주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대스님의 휴연한 임적은 학교가 획기적인

쇄신과 진작을 통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대사인연을 던져준 호기일 수 있다. 종단과 재단과 학교 모두가 정치적 또는 이권구도를 따지기에 앞서 진정 학교와 불교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을 새 이사장으로 호선(互選)하는 미덕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재직이사 중 새 이사장에 누가 적임자인가는, 두말을 필요하지 않는다. 학교도 알고 재단도 알고 종단도 알고 2천만 불교대중도 다 알고 있으니 말이다. 하 춘 생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수업 중 소음 혹시 당신이 범인이십니까?

수업 중 울리는 핸드폰, 강의실 옆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 ... 교수, 학생 모두 '김빠지게' 만드는 소음의 주인공이 혹시 당신은 아니십니까?

강의실 안에서, 밖에서도 수업 중 '정숙'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3면 학생회기획④ 간담회

학생회 소의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에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4면 농업현안 들여다 보기

지난 19일 열린 농민대회와 농민의 현안인 무역개발에 대해 살펴본다.

8면 우리말, 새책을 튀워라

한글 사용의 현주소와 활성화 움직임에 대해 알아본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요구

“공식적인 논의기구 마련해야” ... 학교 “예산 등에 대한 검토 필요”

법대(학장=손성)가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설립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 구성을 학교측에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정부의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시험이 아닌 전문대학원의 6학기 전문법학교육 수료과정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기존의 학부에서 진행되는 법학교육을 교양법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에 법대는 올 초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지난 10월 학교측에 공식

적으로 설립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손성 법대학장은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 대학을 지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법대인 대학간 경쟁에서도 뒤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후발적으로 도입할 경우 우수교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라 선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법

학전문대학원을 새로 건축하고 한양대가 단독건물확보를 비롯해 1천억 원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계획하는 등 주요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이미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학교측은 타대학 자료를 조사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법학 뿐 아니라 의학·경영 등 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정부와 각 대학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고 있으며 법대 전임교수는 8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기획심사팀의 한 관계자는 “전문대학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학 뿐 아니라 의학·경영 등 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정부와 각 대학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문화관·동국관 공간 재배치

공용강의실 6개·실습실 등

블로그와 법대의 구도서관 이전에 따른 기존 학술문화관과 동국관의 공간배치가 확정됐다.

공간재배치위원회(위원장=이영환·경제학)는 지난 19일 회의를 통해 단과대 이전에 따른 기존 공간을 대부분 공용강의실로 변경해 강의실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을 결정했다.

학술문화관의 경우 블로그가 사용하던 공간을 △중형 강의실 3실 △소형 세미나실 2실로 활용하고 블로그 학생회실을 교수연구실로 용도 변경했다.

또한 실습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술문화관 내에 위치한

식당인 그림의 면적을 축소하고 대신 교육실습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배치가 확정됐다.

동국관의 경우 기존 법대가 사용하던 공간을 △대형 강의실 2실 △중형 강의실 1실로 이용함으로써 동국관 지역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획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80%를 육박하던 강의실 활용률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생회 요구를 반영해 구도서관 2층에 마련될 멀티미디어실 3층까지 확충해 총100여대의 컴퓨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귀의’의 약속 ... ‘초·중·고등학생 합동수계 법회’가 지난 20일 열렸다. 명성여고 등 본교 4개 부속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총 700여명이 참가해 수계를 받았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이미지 강화·재정 확충해야”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 열려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이 건학 100주년을 900일 앞둔 지난 20일 학내·외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건학 100주년 기념 사업회(본부장=선상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본교의 과거, 현재를 되돌아보며 미래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마련됐으며 학내·외 구성원들의 주제발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들은 과거 본교는 수많은 문인을 배출하고 불교학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수행했으나 6~70년대에 이르러 리더쉽이 불안정해지면서 △연구능력 △후생복지시설 등의 분야에서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외부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이유로 재정부족을 꼽으며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용택(사회복지학) 교수는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주캠퍼스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김봉현(광고학) 교수는 “대학 마케팅, 홍보이벤트 등을 강화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으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며 이미지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문병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이사는 “불교학을 중심으로 인문 사회, 기초 과학 등의 분야를 특성화해 대 도약의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영빈(경영4) 총학생회장은 “동국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화합이 중요하다”며 “대학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사행정에 학내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발전방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있었으나 저조한 참여율로 아쉬움을 남겼다.

앞으로 학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학 100주년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부
dmz@dongguk.edu

회전문대

목마른 홍보

○...중앙도서관 A/V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부로 한정됐다는데.

알아보니 영화상영을 비롯해 학과 행사 시 공간을 대여해주는 등 다양한 용도가 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도서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중앙 A/V실 홍보는 소수정예로 이루어진 다(!)”

다기능 법당

○...요즘 대각전은 수업이 끝난 일부 학생들의 휴식공간 기능을 하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일부 학생들이 강의가 끝난 후에도 대각전에 남아 답답을 나누는 것이라고.

예불을 드리는 공간인 만큼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삼가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대각전 수업후 남는것은 학생들의 끝까지 않은 수다뿐이다”

나만의 강연회

○...지난주 2차례 진행된 초청 강연회에서 몇몇 학생들은 강연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는데.

알아보니 강연 도중 핸드폰을 받거나 왔다갔다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는 강연을 듣는 주변 사람들도 게도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강연자가 강연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초청 강연회에 초청된 참석자들의 개인 주의”

구명난 선거

○...총학생회 선거 투표함을 여는 순간 일부 선관위는 투표함을 재빨리 착각할 뻔 한 일이 발생했다는데.

알아보니 일부 학생이 투표함에 담배꽂이를 묶은 등치와 담배꽂로 구멍을 낸 투표용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학생회 선거 투표 방식은 유권자 마음대로(!)”

중도 임시열람실 개방
지하 3, 4층 총 300석

중앙도서관(관장=최인숙·철학, 이하 중도)이 시험기간 발생하는 열람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임시 열람실을 개방한다.

임시 열람실은 중앙도서관 지하 3, 4층에 총 300석이 마련됐으며, 휴일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개방한다.

한편 이번 시험기간에는 강의실을 개방하지 않을 예정이다.

겨울학기 봉사단원 모집
다음달 3일부터 접수

참사람봉사단(단장=이관재·통계학)이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겨울학기 봉사단원을 모집한다.

봉사단원은 육수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1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활동하게 되며, 봉사기간 내 33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봉사학점 1학점이 인정된다.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단원은 한사람 마을과 향림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후 다음달 22일부터 다음달 2월 28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기간제 보관함 신청
도서 반납창구에서 접수

중앙도서관이 기간제 보관함 신청을 다음달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중도 2층 도서반납창구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기간제 보관함은 3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재학생을 비롯해 휴학생, 졸업생 등의 이용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3개월 동안 9천원이다.

한편,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제 보관함 100개를 기간제 보관함으로 전환해 기간제 보관함이 총 300개로 늘었다.

한국외대 학점교류 신청
‘심리학개론’ 등 22과목

교무처(처장=김무봉·국어국문학) 학사지원실이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겨울계절학기 학점교류 신청을 오늘(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개설 과목은 ‘매스컴의 이해’, ‘심리학 개론’ 등 교양 22과목으로 신청은 6학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강의는 다음달 22일부터 다음달 1월 12까지 진행된다.

다황관 서점 할인
오는 29일까지 최고 30%

다황관 내 서점이 신간을 제외한 모든 도서를 오는 29일까지 10~30% 할인한다.

생활협동조합(위원장=유덕기·생명자원유통학)은 신학기부터 실시된 도서정가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제고를 처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경소 구입하려 했던 책을 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선자 인터뷰

제36대 총학생회 당선자 인터뷰
“학생 직접 만나 의견수렴할 것”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당선된 구자룡(야간강좌 영문4)·이승호(국교4) 조를 만나 활발한 학생의견수렴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총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학생회는 단순히 학생회의 나열이 아닌 학생회간 연대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즉 단과대를 비롯한 동아리, 소모임 등 여러 단위의 분산된 의견을 조율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다음해 등록금 논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매년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을 조정이 아닌 재단 전입금 확충, 재단개혁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근본적인 재단개혁으로 문제를 개선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내 3주체가 모여 논의하는 등학생회 구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등록금책정이 되도록 하겠다.

- 학생의견 수렴을 활발히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선전물 홍보 보다 직접 발로 뛰며 꾸준히 학생들과 1:1 만남을 가져 기존단위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학생회 행사, 사업 등을 연구하는 ‘과학생회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과 학생회를 조직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생활정보계시판을 학내 곳곳에 설치해 학생들의 학생회 사업현황 등 학내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제20대 동연 당선자 인터뷰
“열린 동아리연합회 만들 것”

동아리 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이동철(독문3, 동국문화회) 군을 만나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동아리 지원금 등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은?
= 학교 측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아리 특별지원금이 17만원으로 9년 동안 동결된 상태다. 특히 지난 2001년 학자협 의안의 하나로 5%인상안이 결정됐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의원과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정적지지시명을 받아 학교측에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동연이 일반적으로 개별 학생회(분과별 예산)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분과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분과에서 자치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다.

- 동아리 지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공간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학생회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연 옆 빈방과 같이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을 동아리 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회관 옥상을 공연장과 동아리들의 연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동연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장애인 학우들의 학관 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학관 출입문에 경사판을 설치해 학생자치기구나 민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린 동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설윤진 기자
dbswls@dongguk.edu

2004학년도 1차 전공결정

1. 신청대상
가. 2003학년도 1학년 재학생
나. 2학년 1학기 복학생으로서 전공 미결정자

2. 일정
가. 전공 신청기간
- 1학년 재학생 : 2003. 11. 24(월) ~ 11. 28(금)
(1차 복학시기)
- 2학년 1학기 1차 복학생 : 2003. 12. 1(월) ~ 12. 3(수)
(2차 복학시기)
- 2학년 1학기 2차 복학생 : 2004. 2. 16(월) ~ 2. 18(수)
(2차 복학시기)

나. 전공배정 최종 결정 및 확정공고
- 1학년 재학생 및 2학년 1학기 1차 복학생 : 2004. 2. 13(금)까지
* 대학별 공고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3. 전공결정 신청방법
가. 1학년 재학생 : 인터넷 신청(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재학생서비스-전공신청화면)
나. 2학년 1학기 복학생
(1)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소속 복학생 : 소속 대학 교과과정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이나 소속된 모집단위 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내 지원 가능한 전공이 4개미만일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일 수 있다.
(2)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 소속 복학생 : 소속 대학 교과과정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소속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 중 1개의 전공을 선택한다.

교과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1. 신청자격:
가. 2003학년도 2학기 현재 교과과정이 승인되어 있는 학과(전공)의 2학년 2학기 재학생.
* 중앙중문학전공, 연극영화전공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세무회계전공(주.야)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선발함.
나. 총 취득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인자.

2. 선발일정
가.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1차 2003. 12. 1(월) ~ 12. 5(금), 2차 2004. 2. 2 ~ 2. 6
* 1차에서 교과과정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타 학과(전공)로 전과전술 할 경우 교과과정이수 자격이 상실되며, 1차 선발 결과 선발인원이 해당 학과(전공) 교과과정이수자 선발정원에 미달될 경우 전과전입생을 포함하여 2차 선발함.
(2) 접수처 :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3) 신청서류 : 교과과정이수신청서(소속대학 교과과정 게시판에서 출력)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교과과정 게시판에서 출력

나. 면접 : 학과(전공)별 일정에 따라 아래 기간중 실시함.
(1) 1차 : 2003. 12. 8 ~ 12. 12
(2) 2차 : 2004. 2. 9 ~ 2. 14 (신청자가 있을 경우 시행함)

다. 합격자 발표 : 2004. 2. 28일 이전 소속 대학 교과과정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3. 선발기준 및 방식
가. 교과과정 설치 학과(전공)의 선발정원 범위 내에서 선발함. (교과과정 설치학과 및 선발정원은 학교 홈페이지 교과과정 게시판 참조)
나. 1, 2학년 누계성적(90%) + 교과과정·적성을 반영한 면접점수(10%)

4. 참고사항
가. 교과과정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타 학과(전공)로 전과하면 그 자격이 상실됨.
나. 교과복수전공 신청은 학위복수전공 신청으로 대체하므로 학위복수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선발되어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학 교과과정(☎ 2260-3751,3380)로 문의 바랍니다.

“활동현황 · 예산 공개로 참여 이끌어야”

- 학생회, 이제는 변화해야 -

학생회 선거는 치러졌지만 이번 선거 역시 투표율 50%를 갱신해 넘겨, ‘학생회 고립’은 여전히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1일 본사 회의실에서 장운(학생복지실 과장), 주진완(국교4, 전 34대 총학생회장), 장진욱(통계4, 이과대 학생회장), 신지영(정외2) 양이 모여 학생회 소외의 원인이 무엇인지 학생회 운영 구조 등을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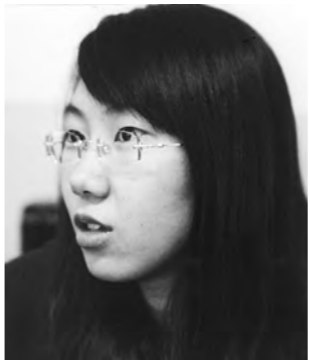
장운 (학생복지실 과장)



주진완 (전 총학생회장)



장진욱 (이과대 학생회장)



신지영 (정외2)

- ① 선거공약 이행
- ② 의견수렴절차
- ③ 예산의 투명성
- ④ 간담회

관심부족 VS 의견수렴 문제

사회자=학생회가 대중적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운=학생회가 계몽적으로 활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시대는 변하는데, 학생회는 과거 기준을 적용해 정파적 입장으로 계몽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의식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진 학생들에게 오히려 반감으로 다가와 대중성 획득에 장애로 작용한다.

학생회 행사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얼마 전 백상에올체전을 예로 들면 마라톤의 코스 등이 이전 방식 그대로다. 대중활동이라는 사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학생회가 학교와 진행되고 있는 논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본다. 즉, 학생들은 학생회가 학내사안에 대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우선 행사 등의 참여인원만으로 대중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반적인 학내·외 사안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라고 본다.

신지영(이하 신)=학생 ‘자치’ 기구라는 점에 공감한다. 학생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학생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계 학내·외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특히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활동 현황을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동의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생회의 활동이 학내보다 학외사안에 치우쳐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사이에 토론문화가 정립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본다. 학내·외 사안이 학생사회에서 쟁점이 되지 못하고 이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다.

진=역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의 관심부족이다. 학생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학생회 사업이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달라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회가 직접 발로 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기층단위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단과대 운영위원회 등이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 특히 일부 학생회가 예산부분을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모습은 학생들로부터 신뢰부족으로 비치기도 했다.

신=학생회가 특정 정파를 지니게 됨에 따라, 다른 정파를 지닌 학생들은 반감을 갖게 되는 경향도 있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 불신은 전반적인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투표율을 예로 들면,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도 저조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학생들의 문제의식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본다. 대다수 학생들은 학내·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참여와 지지가 저조한 것이다.

또한 학생회가 활동현황과 예산부분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역시 동감한다.

뜨거운 감자 ‘한총련’

사회자=요즘 학생회가, 많은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로 인식되는 ‘한총련’에 가입돼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운=현재 많은 학생들이 한총련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한총련이

학생들로부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는지 대중성을 획득하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한총련 활동 자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실제 많은 학생들이 한총련을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한총련에 대한 인식을 호도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한총련이라는 세 글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언론에 의해 조장된 ‘정치투쟁=한총련’이라는 의식구조가 한총련에 대한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실제로 한총련과 학생참여는 큰 관계가 없다. 숭실대는 몇 년 전 한총련을 탈퇴했지만 여전히 학생참여가 부족하다는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진=한총련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보니 한총련에 대해 더욱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 지키는 ‘대중화’ 를

사회자=학생회에 버리는 점이 있다면.

진=무엇보다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이 학생회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여를 이끄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신=학생회가 학내문제를 학생들의 직접적 이익에만 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시간강사 처우와 같이 교육분야의 공익을 위해서도 학생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와 같은 ‘학생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운=시대적으로 학생회가 대중의 ‘힘있는’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4.19정신에 입각한 학생회 활동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시대를 선도해야 할 학생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발로 뛰는’ 학생회가 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작은 부분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위기는 조금씩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정리=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사설

집시법 개악은 안된다

국회 행정자치위가 지난 19일 통과시킨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은, 과연 국회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먼저 개정안이 규정한 불법집회의 범위가 너무나 넓다. 관할시장의 명령만 떨어지면 집회가 전면 금지될 수 있는 전국 95개 주요도로는 도심의 거의 모든 도로에 해당된다. 폭력시대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동안 같은 집회를 금지시킨 조항 역시 집회집단 전·의결에 의한 폭력사건들이 규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높다.

여기에 사복경찰이 집회준비현장에 드나들어 활동하는 것까지 합법화한다면 집회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고, 이는 곧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집회 자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을 국회가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을 두고 ‘집회금지법’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회와 경찰 측은 “최근 과격시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군사정부시절, 집회가 ‘강경 투쟁’일변도였던 것이, 과연 제대로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인가. 억압하면 할수록, 귀를 닫으면 답을수록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표현이 더욱 거세지는 것은 상식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집회에 대해 ‘일단 막고 보자’는 식의 자세로 일관해 왔다. 끊임없는 위헌논란이 있었음에도 상당수의 군 인력을 전투경찰로 차출해, 집회집단에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해석의 여지가 많은 헌법 집시법을 악용, 인원초과 등 사소한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일도 잦았다. 이미 ‘외교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헌판결을 받지 않았던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이기때, 이번 개정 문제는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다행히 아직 국회의 심의는 끝나지 않았다. 올바른 집회문화화를 위해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민주사회’의 입법기관이라면 말이다.

동국만평

장미애 substory@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이상영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	구본철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한보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 취지**
가.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 활용(feedback)을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교원업적평가 및 기관평가 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를 산출하기 위함.
- 시행시기** : 2003. 11. 24(월) ~ 12. 7(일) 중
- 대상** : 2003학년도 2학기 개설 전체 강좌
- 응답자격** : 2003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전체
- 응답요령**
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클릭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문항의 해당사항을 선택
다. 문항 건의사항란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공지 사항**
가.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응답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나. 무성의한 답변(5점적 중 일hell로 5회 이상 답변)은 피하기 바람. 건의사항란에는 5점적 답변이 곤란한 사항 등을 서술하기 바랍니다.
다.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라.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이상 설문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공시 조회를 제한합니다.

교무처

자원절약 캠페인 공모전

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동국인의 의식을 제고하고 자원절약에 관한 참여의식과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국 가족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주제** : 교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물, 유류, 종이, 화장지 등 각종 자원절약
- 응모부문 및 제출규격**
가. 포스터 : 제한 없음
나. 포스터 : A3 size
다. 디자인 : A3 size
라. 플래시 애니메이션 : 3분 이내
- 시상** : 금상 1점(디지털 카메라-올림푸스/C-350Z) 은상 3점(문화상품권 5만원) 동상 4점(문화상품권 1만원)
- 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표절할 경우 시상 취소
- 내내사항** : 선정된 작품은 캠페인용 스티커 및 포스터 제작 배포 예정임.
-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03년 12월 12일(금) 학생복지실 ☎ 2260-3048
- 주최 및 주관** : 학생처 학생복지실, 총무처 총무팀

학생처 학생복지실·총무처 총무팀

제2회 동국청수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7~10대 회장이셨던 故 청우 최재구 선생의 동국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제2회 동국청수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동국인(동문, 교수, 직원, 학생)
- 구비서류**
1) 추천서(지정양식) 1부
2) 공적조서(지정양식) 1부
3) 이력서 1부
4) 사진(여권용) 2장
5) 공적 증빙자료 1부

- 접수마감** : 2003년 12월 8일까지
- 시상** : 상패 및 부상(순금 30돈)
- 시상일** : 2003년 12월 18일(목) 오후 6:30 엠버서더 호텔 2층 (총동창회 '동국인의 밤' 행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우 최재구선생 추모사업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교수회관 327호실 ☎ 016-896-3916(윤천영) / 2260-3025(신관호)

청우 최재구 선생 추모사업회 회장 류주형

개방물결 앞에 농민은 불안하다

WTO·FTA·쌀시장 개방 협상에 앞서 정부·농민단체 간 개방원칙 합의해야



지난 19일 열린 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은 WTO·쌀 개방 반대를 주장했다.

지난 19일 열린 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WTO 국제농업협상과 한·칠레 FTA 협정반대, 2004년 쌀시장 개방 반대였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외적인 문제로 협상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와 농민계가 합의기구를 구성해 무역 개방에 대한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WTO 국제농업협상=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체하게 될 '새로운 라운드' 구성에 대한 논의가 9월 결렬됐던 '칸론 특별차료회의'에 이어, 조만간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 협상에서 수입 농산물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의 감축 폭을 최대한 줄여, 관세장벽을 낮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유리한 협상에 필요한 '개발 도상

국의 지위 유지'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 단체들은 농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WTO협상에서 농업분야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칠레 FTA=지난해 10월, 6년만의 협상 끝에 타결된 한·칠레 FTA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히 비준 동의안 통과를 준비하는 한편 협정 체결 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포도, 사과 등의 과수산업피해액 7천억 원을 대비해 약 1조원의 지원계획을 세워 '자유무역협정이행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협상체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잠정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개방에 반대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마늘협상 당시 약속한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의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농민단체들은 정부

가 이제까지 농업정책 실패를 거듭해 온 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다.

▲쌀 시장 개방=지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당시 관세화 즉, 시장개방을 10년 동안 유예했던 쌀 시장개방에 대한 재협상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농민 단체들은 관세화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표면적으로는 관세화 유예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익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하고 있다.

관세화 유예를 유지할 경우 쌀 수출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의무수입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인 현재 170만 섬에서 대폭 늘어나게 돼 실익이 없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중 쌀 시장 개방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WTO의 규제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개방여부에 대한 방침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지난 19일 농민대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7만여명의 농민들이 참가해 WTO·쌀 개방 반대를 외쳤다. 이에 현재 가장 시급한 농민현안인 무역개방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농민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본다. 편집자

농민대회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 농업, 우리가 지켜야죠”

지난 19일 여의도와 대학로에서 7만 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농민 생존권 쟁취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송남수)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농민들은 WTO 개방 반대와 한·칠레 무역협정 철폐 등 정부의 농업정책에 강한 반대사를 표시했으며 국회의사당으로 거리시위를 하던 중 전경들과 무력충돌을 빚기도 했다. 그 현장에서 농민과 학생, 일반시민을 만나 보았다.

“기본적 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농민 염홍구(54세) 씨



WTO 개방과 FTA 협정 등 농민을 억압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항의하고자 경북 영천에서 올라왔다.

우리나라 농업 문제는 정부의 대안 없는 농산물 개방 정책과 은행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있다. 농업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인, '농산물 제 값 받기'를 위해 농업중앙회에서 공동구매, 협동판매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힘들게 농사 지어 얻은 수확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대학생 김병환(23세) 군



대부분의 학생들이 농산물 개방을 자신과 먼 문제로 생각하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나 역시 방중에 실시한 농민학생연대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있지만 주변에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회 측이 농민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다소 정치적 성향을 띤 농민학생연대활동 외에 농촌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 통해 개방저지에 동참할 생각”

시민 정관덕(29세) 씨



개인적으로 인터넷 참여 등을 통해 농산물 개방 저지에 동참할 생각이다.

다른 시민들도 농산물 개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농민들도 과격한 시위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이 개방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농산물은 팔리지 않을 수밖에 없기에 답답한 생각이 든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이주의 시사키워드 - 농업 현안의 핵심 무역개방



최근 무역개방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러나 외교적인 문제가 보니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돼 이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에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살펴본다.

WTO(세계무역기구)

WTO는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 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게 된 국제기구이다.

예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대한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였으나 현재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뉴라운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GATT에는 없던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관할권과 그 관할의 강제 집행권이 있으며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도 가지고 있다.

앞으로 DDA와 새롭게 협정될 '뉴라운드' 역시 WTO

의 제재를 받게 된다.

DDA(도하개발의제)

'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2001년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의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이는 농업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만들어질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뉴 라운드)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도하개발의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실제 큰 성과는 없다. 우루과이라운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부분까지 무역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개방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유리한 공산품 관세 인하, 반덤핑협정 개정 등의 합의가 이뤄져 수출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농산물의 개방에 대한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달리 교육·의료·법률·시청각 등 4개 분야와 통신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교육부분은 이미 지난 3월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 협상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2005년 1월 1일까지 공

산품·농산물·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 한다.

FTA(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는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는 지역간 협정이다.

FTA가 체결되면 당사국간에는 관세율이 거의 없어지고 무역장벽도 없어져 시장이 개방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백여개 이상의 지역 FTA가 맺어져 있으며 북미 3개국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국에 오는 2020년까지 EU방식의 경제공동체를 창설하기로 발리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94년 쿠바를 제외한 아메리카 대륙 전 국가가 가입한 FTAA(미주자유무역지역)의 협정 체결 완료는 2년 앞으로 다가왔다.

또한 중국과 일본 역시 FTA체결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칠레와의 협정을 마무리지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FTA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제18회 동대문학상

희곡·시나리오 장원 - 김지원(예술대 문창3)

첫 눈 오는 골목

◆등장인물

아이 아빠, 최씨 (30대 후반)
아이 엄마, 이 집사 (30대 초반)
아이 (최씨와 이 집사 사이의 아들, 7세)
차를 타고 최씨와 함께 온 시장 사장의 비서
동네 여자 1, 2, 3
동네 아이 1, 2
행인 (노파, 청년)

#1. 비 오는 밤. 어느 동네 (실외, 밤)
F. I (빗소리가 화면보다 먼저 들린다.)
비 오는 밤. 허름한 어느 동네. 철거가 진행되는 지 허물어 진 집들 사이로 포크레인 등의 장비들이 보인다. 집들의 벽에는 락카로 쓰인 숫자들이 어지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카메라. 한 집으로 Z.I.에 이은 TRACKING. (카메라는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간다.)
집 안, 방 쪽에서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란함이 들린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듯한 소리다. 그러나 소란함은 계속되는 빗소리에 묻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다.

#2. 집 마당 (실외, 밤)
집 마당에 아무렇게 누어진 낡은 자전거 한 대가 보인다. 그 옆으로 물웅덩이도 보인다. 물웅덩이에 투영되는 자전거 바퀴. 그것은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

#3. 집 안 (실내, 밤.)
조그만 경대의 거울에 반사된 남자와 여자. 싸우고 있다. 남자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으나 여자가 남자에 의해 떠밀리는 모습이 거울 안으로 흘러들 것 들어온다.

이 집사 : (한껏 억누르는 듯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 생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구 이 꼴을 참고 살아, 집에서 마음 졸이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지, 그게 도리지.
최 씨 : (흥분된 마음을 애써 참으며 타이르는 듯) 글썽 니가 뭘 안다구 난리야, 이 난리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생각했으면 이 집구석에 남아있지도 않지. 다같이 잘 살자구 하는 짓인데…….(여자 대사 오버랩)
이 집사 : (남자의 말허리를 자르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 다같이(겉개)가 누군데, 나? 동네사람들? 다방 미스…….(남자 대사 오버랩)
최 씨 : (여자의 말허리를 자르며) 글썽, 남자하는 일에 여편네가 이래라저래라 지랄 떨지 말어!
이 집사 : 동네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그건 둘째 치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못 쓰다고! 너무 이렇게는 못살아. 더 이상은 안 살아진다구!

남녀의 격해지는 몸짓에 따라 경대의 거울에 비치는 그들의 모습이 빠르게 보이고 안 보이고를 반복한다. 카메라는 거울을 통해 두 남녀를 찍고 있다. 이런 남녀의 싸움을 아이가 거울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 아이는 남녀의 싸움보다 그것이 거울에 비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는 듯 하다. 이미 이런 전경에 익숙한 듯 얼마간 거울을 바라보던 아이는 문득 거울에 물은 손자국에 주목한다. 거울의 때, 그것이 거슬리는 지 조그만 손으로 닦아보는 아이. 어느새 남녀가 싸우는 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아이의 손이 남녀를 지우듯 아이는 거울을 닦고 또 닦는다. 이윽고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울을 접어서 경대를 덮어 버린다.

F. O. (아이가 경대를 접는 리듬에 따라, 사운드도 함께.)

BGM이 화면과 사운드가 사라짐에 따라 들려오기 시작하다가 #4으로 넘어가면서 줄어든다.
#5. 제목 (C.G.)
검은 화면 바탕의 중앙에 밝은 점 하나가 나타난다. 그 점에서 시작된 밝은 화면을 아래위로 가로지르는 세로의 선으로 변한다.(효과음 삽입) 그 선에서 빛이 쏟아져 나와 화면은 금세 새하얗게 밝아진다. 제목 '첫 눈 오는 골목'이 검은 색으로 화면 중앙에 세로로 나타난다.

#6. 집안 (실내, 오전)
최씨가 옷을 입으며 서 있다. 어제 밤의 일로 방안이 신문이며 슬펌, 얼질러진 술잔과 밥상. 옷가지들로 온통 난장판을 이루고 있다. 경대도 쓰러져 있다. 최씨는 촌스런 넥타이를 매고 서 있다가 문득 난장판인 방 안을 둘러본다. 때마침 옆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발로 걷어치며 밖에다 대고 소리친다.

SE) 재떨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최 씨 : 넌 밤새 뭘 한거야? 이래 놓고도 잠이

오다? (재떨이를 찬 발이 아프다. 발쪽을 바라보며 엉겨주춤하다) 집안 꼴이 이러니, (구석의 아이를 바라보다 다시 문 밖을 향해) 아!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려!

카메라 천천히 PAN하면, 방구석에 무릎을 두 팔로 웅크린 듯 안고 앉아있는 아이가 보인다. 아이는 아버지 최씨가 무서워 고개도 들지 못하고 꼼지락거리는 자신의 발만을 바라본다.
신경질적으로 물건들을 발로 차는 최씨. 아이는 얼어져 있는 경대의 거울을 통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게 된다. 경대는 아이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다. 아이는 고개를 약간 기울여 거울 속의 아버지를 유심히 쳐다본다. 최씨의 움직임에 따라 아이의 고개도 함께 움직인다. 아버지가 아이를 한 번 힐끗 쳐다본다. 놀란 아이가 얼른 시선을 피하지만, 이내 도로 고개를 들고 배시시 웃는다. 최씨를 향해.
최씨는 아이의 웃음을 보지 못한 채, 발로 문을 차고 나간다. 최씨가 나간지라 아이는 그만 허공을 향해 웃음을 지어보인 꼴이 되고 만다.

아이는 어색한 그 표정 그대로 슬금슬금 무릎으로 기어서 경대로 다가간다. 경대를 바로 세운다. 밖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끌고 나가며 짐을 뺐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의 엄마인 이 집사가 방안으로 걸레를 들고 들어와 지저분해진 방을 청소한다. 아이는 그녀의 동선에 따라 거울을 이리저리 둘러가며 장난을 친다.

이 집사 : (혼자 중얼거리듯) 밤새 어디서 자빠져있다 들어온 주제에, 지도 남자라고……. 예유, 애 눈이 무섭지도 않나. 꺾었하면 문 박차고 뛰쳐나가나……. (아이를 본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가 한 숨을 쉬며 방문을 열고 나가자 밖에서는 동네여자들의 고통소리가 들린다.

동네여자1(소리만) : 이 집사, 없이 사는 사람끼리 이럴 수 있어? 교인이면 교인답게 행동을 해야지…….

동네여자2(소리만) : (동네사람1의 말허리를 자르며) 행동은 무슨, 행동은 집어치우고 가만히나 있으란 말이야, 가만히나 줌, 왜 나서서 욕을 쳐먹고 돌아댕겨!

이런 식의 너도나도 질러대는 소리들로 바야 무척 시끄럽다. 아이는 밖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듯이 경대의 서랍을 열어, 그 안의 물건들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동네여자들과 엄마의 말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카메라는 아이의 모습만을 비춘다.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진다.

엄마(소리만) : 너더러 어찌라구요! 맨날 이렇게 찾아와서 왜 나만 못살게 구는 거예요! 이거 안보여요? 나도 맨날 당하고 사는 사람인데, 왜 나만 못살게 구냐구요, 내가 힘이 있어 뜯어 말할꺼예요, 돈이 있어 보태드릴꺼예요, 나도 똑같다구요, 살고 싶다고요!

잠시 조용해 진 듯하다가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

동네여자3(소리만) : 다 한쪽속이지 뭐! 한 이불 덮고 사는 연봉들이 어련할라구.
동네사람2(소리만) : 우리도 가만있지는 않을 거야. 돈을 얼마나 쳐먹는지는 몰라도 더럽게 먹은 돈, 체하게 돼있어!
동네사람3(소리만) : 교회에서도 안 봤으면 좋겠네, 앞으로.
동네여자4(소리만) : 교회는 무슨! 아주 윤행밖에 콧 떨어져 죽을꺼여, 예약 다 됐어, 아주

아이의 엄마인 이 집사에게 성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무리들이 돌아간다. 소음이 사라지고, 아이는 서랍에서 반창고를 발견한다.

그 때, 엄마가 자신의 가슴을 치고 못살아못살아를 연신 되뇌면서 방으로 들어온다. 엄마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경대의 서랍을 죄다 열어 놓은 것을 본다. 이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 아이의 등쪽을 때린 후 경대를 빼앗아 방 한쪽으로 치워 놓는다.

이 집사 : (아무런 의미 없이) 서방복 없는 년이 지식복도 없더니.

그리고는 다시 못산다는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방안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대충 구석으로 밀어놓은 후 두루마리 휴지를 모로 베고 눕는다. 아이는 그새 뭔가를 생각하다 살금살금 무릎으로 기어 경대로 다가가 서랍속의 반창고를 꺼내 누워있는 엄마를 타님과 문밖으로 나간다. 아이가 방문을 닫고 급하게 신발을 신고 뛰어간다. 뒤로 또 어디 가냐고 묻는 엄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수상소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만들고 싶어
부족한 작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부끄럽지만 생각지 못했던 행운이 나에게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작은 정성을 깊게 들여다 보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면을 빌어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격려해주신 박노현 선배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김지원(예술대 문창3)

#7. 집 마당 (실외, 오전)
아이가 마당의 물웅덩이를 힘차게 밟고 뛰어간다. 물웅덩이의 수면위로 큰 파문이 일었다가 다시 잔잔해진다.

#8. 동네 전경 (실외, 오전)
하늘, 전 날의 비로 인해 여운이 남았는지 구름이 낮고 어둡다. 카메라가 하늘로부터 Tilt Down하면 예의 철거가 진행 중인 동네가 보인다.
동네는 한적하다. 그 골목 사이로 노파가 머리에 짐을 이고 천천히 걸어가려는 것이 보인다. 날씨가 쌀쌀한 계절이다. 노파는 옷을 든든하게 입었다. 맞은편엔 웬 젊은 청년하나가 강퍽을 발로 차며 걸 어간다. 강퍽차이는 소리가 다소 과장되어 크게 들린다.

#9. 빈 집, 밖 (실외, 오전)
사람이 거거하지 않을 법한 빈집이다. 대문에는 완벽한 폐쇄를 위한 각목이 못질된 채로 엮걸려 붙어있다. 아이는 주위를 살핀 후 집 뒤로 들어간다. 아이는 책가방만한 합판조각과 그것을 받치고 있던 벽돌 두 개를 치워낸다. 그 뒤로 나타난 것은 강아지나 몸집이 조그마한 아이만이 왕래할 수 있는 구멍이다. 아이는 구멍으로 들어간다.

#10. 어두운 집 안 (실내, 오전)
아이는 능숙한 발걸음으로 집안을 돌아다닌다. 아이는 집안 구석구석 숨어있는 자신의 물건들을 확인한다. 장난감, 구슬, 딱지 등. 벽에는 아이의 글씨로 보이는 낙서들이 보인다.
엄마, 아빠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답게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서툰 그림도 보인다. 아이는 집의 안방으로 사용되었을 법한 곳에 걸려 있는 커다란 거울 앞으로 다가간다. ‘축 개업’ 따위의 글귀가 적혀 있는 그 거울은 깨져서 금이 가있는 상태이다. 그 금은 거울의 위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종단하고 있어 거울에 비친 아이의 얼굴도 반으로 쪼개져 보인다.

아이는 준비해온 반창고를 주머니에서 꺼낸다. 아이는 쪼개진 거울위로 두 세 겹 두껍게 반창고를 붙여 댄다. 반창고가 모자라 반 정도 밖에 붙이지 못하자 다시 뜯어내어 나름대로 계산한 한 후, 얼마간의 간격을 더 벌려서 붙인다. 정성을 들인 수리가 끝이 나자 아이는 만족감에 흠족해 한다. 아이는 책상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서랍안의 딱지와 구슬을 꺼낸다. 딱지는 주머니에 넣고 구슬은 손에 든 채, 들어왔던 구멍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간다.

#11. 빈 집, 밖 (실외, 오전)
다시 장애물들을 이용해 출입구를 막은 아이는 골목길로 뛰어간다.

#12. 공터 (실외, 오전)
공터의 아이들, 구슬치기를 하고 있다. 아이가 주뿔거리며 다가와 무리사이에 쭈그러 앉는다. 저희끼리 놀고 있던 동네아이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아이를 쳐다본다. 무리 중 동네아이1이 아이를 밀치며 말한다.

동네아이1 : 째루가!
동네아이 2, 엉덩방아를 찢고 다시 일어나려는 아이의 손에 있던 구슬을 쳐낸다. 구슬이 땅바닥에 구른다.

동네아이2 : 너네 아빠 땀에 우리 집, 이사 가야 돼!

아이는 구르는 구슬을 잠시 쳐다보다 일어나서 엉덩이를 털고 골목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구슬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한다. 구슬을 다 주는 아이는 힘이 빠진 걸음걸이로 걸어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다보고 무리에게 혀를 내보인 후 까마 침을 빨고는 (아이의 아빠, 최씨처럼) 다시 몸을 돌려 뛰기 시작한다.

#13. 골목길 (실외, 오전)
아이가 골목을 따라 걷고 있다. 아이는 한 쪽 팔을 벌려 골목길의 담을 손으로 비비며 걸어간다. 그 반대편에 #8의 청년이 강퍽을 차며 걸어간다. 두 사람은 골목길에서 스치며 엇갈린다.

#14. 거리 (실외, 오전과 오후 사이)

심사평 분명한 메시지 전달력 돋보여

올해 동대문학상의 희곡·시나리오 분야는 응모 편수가 적었다. 우리 연극과 영화에서 가장 큰 문제로 늘 거론되는 것이 창작희곡과 시나리오의 부재라는 사실과 그 장르들이 문화콘텐츠의 기초가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웠다.
응모된 작품 가운데 ‘병원 가는 날’은 역설적 언어로 인물의 내면을 잘 그려내고 있으나 서사의 개연성을 갖추지 못했고, ‘눈 속에 봄을 묻다’는 따뜻한 인물들을 통해 삭막하고 건조한

골목을 벗어난 거리, 아이는 어느새 다소 번잡한 도시의 거리로 나와 있다. 골목에 익숙한 아이는 차도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들과 늘비한 상점, 어딘가를 향해 바삐 걷고 있는 사람들이 생경하다.

상정 중 애견 센터가 보인다. 유리창을 통해 강아지를 구경하는 아이. 아이는 강아지가 귀여운 듯, 연신 웃으며 유리창에 손을 대본다. 그 때, 인도 변에 묶여있던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아이를 향해 쫓는다. 짹짹 놀란 아이는 뒤로 물러서고 애견센터 주인이 밖으로 나온다. 주인을 딸뎁히 바라보던 아이는 등을 돌려 다시 걸기 시작한다. 차도에는 무수무수 유치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통학용 승합차가 지나간다. 승합차 차창 사이로 팔을 빼고 장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핏 보인다. (승합차부분은 관객이 눈치 채지 못하게 빠르게 지나가야 한다.)

#15. 빈 집 (실내, 오후)
조금씩 해가 저물어 간다. 아가보다 많이 어두워졌다.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있고 손에는 여전히 구슬들을 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금이 간 것을 발견하자 아이는 그 구슬을 어루만지며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다가간다. 거울에 붙어 있는 반창고를 하나 떼서 그 구슬에 붙이는 아이. 하지만 몇 번씩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했더니 잘 붙지 않는다. 자꾸만 일어나는 반창고의 끝부분을 열심히 눌러 붙이는 아이.

그때 자동차의 정지하는 소리며 차문을 여닫는 소리, 남자를 말소리 등이 집 밖에서 들린다. 아이는 놀라서 창문의 조그만 틈으로 밖을 내다본다. 잘 닦인 검은 색 고급 승용차가 좁은 창 틈 사이로 보이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화면에는 좁은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들과 그들을 지켜보는 아이의 모습이 교차되어 보여진다.

최 씨 : 저기 초록색 지붕 집은 내일모레 뜯답니다.
사 장 : (손짓으로 가리키며) 그럼 저기 저 집은?

최 씨 : 아, 예. 허허허. 그런데 사장님, 이게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서……. (잠시 후, 다급하고 조심스럽게) 내년에 애 학교도 보내야하고…….
시장의 비서 : 사장님, 시간이…….
사 장 : 어, 그래. 밥 먹을 시간은 있냐? 슬슬 배가 고파오는데. (발길을 돌리다 고개를 찡그리며) 원 동네, 댜 냄새가 이리 나는 거야? (최씨를 향해) 자네, 아까 뭐라구요?
최 씨 : 아닙니다, 나중에, 나중에 말씀…….

사 장 : 무슨 방법을 쓸건데?
최 씨 : 예?
사 장 : 흐흐, 알아서 하라구. 최씨가 힘써주면 나아 편하고 좋지.
최 씨 : 아, 예. 허허허. 그런데 사장님, 이게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서……. (잠시 후, 다급하고 조심스럽게) 내년에 애 학교도 보내야하고…….
시장의 비서 : 사장님, 시간이…….
사 장 : 어, 그래. 밥 먹을 시간은 있냐? 슬슬 배가 고파오는데. (발길을 돌리다 고개를 찡그리며) 원 동네, 댜 냄새가 이리 나는 거야? (최씨를 향해) 자네, 아까 뭐라구요?
최 씨 : 아닙니다, 나중에, 나중에 말씀…….

아이는 놀란 듯 뒤로 물러서다 들고 있던 구슬 하나를 떨어뜨린다. 웬지 모를 겁에 질린 채 문틈으로 밖을 쳐다보는 아이. 아이의 얼굴에는 깨진 거울에 비친 얼굴처럼 한 줄기 긴 빛이 드리운다. 아이의 어두운 얼굴을 반으로 가르며 직선으로 떨어지는 빛줄기.
무리가 자동차에 오르는 소리가 나고, 문틈 사이로 밖의 사람들 모습이 보인다. 그 중 아이의 아버지도 있다.

#16. 아이의 집, 마당 (실외, 오후)
아이의 엄마, 이집사가 좁은 마당을 서성인다. 손목의 시계를 들여다보고 밥 때가 지났는데 아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에 걱정하는 것이다. 이 집사는 대문을 열고 골목 밖으로 나선다.

#17. 아이의 꿈 (환상)
이제까지 등장하던 빈 집이다. 아이는 늘 그랬듯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놀고 있다.
이 때, 누군가 집의 문을 열려고 한다.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침입자는 창문, 벽, 지붕을 가리지 않고 알뜰하게 입구를 만들려고 한다. 집은 서서히 흔들거리며 삐거덕거리는 마찰음은 점점 커져간

세계에 온기를 주는 작품이지만 주인공의 고난이 작위적이며, 극적 갈등이 미흡하다는 점이 흠이다. 당선작인 ‘첫 눈 오는 골목’은 영상에 비해 대사가 안이한 작품이지만 아이의 순수한 내면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시각적 비유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주제를 직접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지녔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공모에 참가한 작품들 모두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더욱 노력하여 좋은 작품을 쓰기 바란다.
이종대(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다. 아이는 겁에 질려 어쩔할 바를 모른다. 아이의 겁먹은 얼굴은 깨진 전신 거울에 비친다. 아이가 깨진 유리의 단면을 따라 돌 혹은 셋, 넷으로 파열되어 비친다.

이윽고 침입자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천천히 걸어오는 남자. 남자의 얼굴은 어두운 탓에 보이지 않는다. 이어 창문이 깨진다. 그 틈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남자. 지붕이 뜯기고 들어오는 남자. 사방이 정체를 몰입자 투성이다.

어느새 남자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섰다. 아이의 구슬이 바닥으로 떨어져 구른다. 포르트로 구르던 구슬이 침입자의 발에 부딪혀 멈춘다. 아이는 구르는 구슬에서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는 아버지 최씨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다른 침입자를 바라본다. 모두가 아버지 최씨다. 아이가 놀라 주저앉으면 아이의 뒤쪽 벽면에 붙여진 그림이 보여진다. 아이가 직접 그린 듯한 서툰 그림은 놀이공원을 배경으로 아빠, 엄마, 아이 이렇게 셋이 그려져 있다.

#18. 골목길, 아이를 찾는 엄마 (실외, 오후)
아이의 엄마가 골목길을 따라 아이를 찾아 나섰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몸짓으로 아이의 특징을 설명하지만 거리가 멀어 관객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골목길엔 어느새 눈이 내린다. 이 집사의 얼굴이 화면 가득 보인다. ‘첫 눈이네……’ 무심결에 짧게 내뱉은 이 집사는 다시 고개를 돌려 골목길을 따라 아이를 찾아 나선다.

아이의 엄마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면, 카메라 Tilt Up.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고 캐롤송이 어디선가 아주 작게 들리기 시작한다.

#19. 빈 집, 안 (실내, 오후)
아이의 발끝에 멈춰 서 있는 구슬이 보인다. 관객은 발의 주인이 아이인지 알 수 없지만 카메라가 Tilt Up하면 발의 주인공이 아이인 것이 드러난다. 아이는 그 상태로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난 듯 구슬을 집어 책상으로 가서 급하게 서랍을 열고 구슬을 쏟아 놓는다. 그리고는 바로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

#20. 빈 집, 밖 (실외, 오후)
아이는 그전에 구멍을 막았던 벽돌과 합판을 걷어내고 주위를 둘러본다.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큰 선반 하나를 힘겹게 끌고 와서 구멍을 막는다.

#21. 몽타주 (짧은 컷들의 교차)
1) 교회에서 예배 보며 웅성거리는 사람들. #6의 동네여자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야기 하고 있다.
2) 사장과 식사하는 최씨, 연신 굶질거리기 바쁘다. 그 와중에서도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고 무언가를 지시하고 확인한다.
3) 길을 걷고 있는 이 집사, 지나가는 사람이 무언가 얘기하려면 인상 쓴 채 손사래를 친다.
4)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눈이 내리자 소리를 지르며 좋아라한다.
5) 포크레인 등의 기계들이 움직이는 모습, 철거 작업 중인 인부들의 모습.

위 컷들의 사이사이에 빈 집에서 나오는 아이의 모습이 삽입된다.
#22. 빈 집, 밖 (실외, 오후. #14-기의 연결 씬)
아이는 연이은 구멍막기 작업에도 성이 차차 않는지 다시 주위를 둘러보다 더 큰 돌을 끌고다며 들고 와서 그 위에 앉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구멍을 막는 아이. 아이는 몇 번 그것들을 손으로 만져본 후 만족해한다. 맑은 이미 많이 어두워져 있다. 아이는 상기된 얼굴로 뛰어 간다. 카메라 앞으로 아이의 그런 얼굴이 프레임 반 정도에 걸려 보인다. 스틸 컷으로 잠시 보여준다. 아이와 주위의 모든 사물이 정지된 채로 하얀 눈송이가 공중을 부유한다. 혼자서만 자유로운 눈꽃이 춤을 춘다.

카메라, 서서히 아이에서 날리는 눈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하늘로 이동한다.

F.O.
엔딩 크레딧 (#3에 BGM으로 깔렸던 주제음악이 흐른다.)

소나기

최근 시위문화
나는 이렇게 본다



△학생과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합법적인 시위? 장난하다.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시하고 그 행위 자체만 비난한다.
 △전경이 불쌍해요.
 △11월 19일 FTA 반대시위, 정부를 상대로 하시오. -98경주
 △괜한 도로 막지 좀 말아주세요. 짜증나요. 왜 하필 종로랑 대학로에서 하는 거야.
 △90년대 이전 정당한 민주화 투쟁, 90년대 이후 이익단체의 표현문화(폭력의 미학) 2000년 이후 자라나는 새싹들이 배우는 문화(우리 함께 해요!)
 △틀 좀 던지지 맙시다. 이스팔트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화염병이 밤 말아먹듯 나오는 구만. △시위문화
 시. 시위를 하는 이유는 위. 위로부터의 개혁에 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 화가 나서 하는 거야.
 △우리 형, 동생인 전경을 좀 때리지 맙시다. △정당한 목적이 있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려면.
 △자기 밥그릇 더 얻으려는 시위는 시위도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휘두르는 물리적·정신적 폭력, 이제 그만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그러하겠는가. 노무현의 뒷통수치기 심각하다.
 △외신기자들은 매주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한다.
 △너무 횡수가 적다.
 △적당히 해요. 경찰도 좀 적당히.
 △시위문화는 원시인이야? 왜? 달라진 게 없지...
 △당신이 참가한 적 있나요?
 △'폭동'에 가까운 폭력시위를 '문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요?

남한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700만 명의 재외동포들이 전 세계 174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어쩔 수 없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으로 강제로 내몰린 다수 이주동포들과 정부 수립 이후 정치·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 중에는 정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이들도 있고, 일본의 20만 재일동포들처럼 50년 넘게 온갖 차별을 감내하면서 통일된 나라의 국적을 갖겠다며 그 나라의 국적 취득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재외동포들도 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은 지난 1999년 반세기 만에 재외동포를 법적으로 정의,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국내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자들은 재외동포체류자격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서 2년 체류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금융권 이용과 부동산 처분 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논단
배덕호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사무국장

재외동포 인정 '평등하게'

현행법의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이주동포만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1948년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인 재CIS(독립국가연합) 동포 50만 명, 재중동포 200만 명, 일본의 조선국적 동포 20만 명 등 약 300만 명은 법률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지난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재외동포법이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와 '정부수립 이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법이므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차별을 조장한 법률 조항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 주문했으며,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조항이 모두 효력을 상실하고 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못박았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지 않고 법률을 개정했다는 데 있다.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령'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내·외 관련단체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

았음에도, 지난 11월 20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와 국회, 시민사회단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시행령 개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법률조항의 개정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만을 개정할 것은 치명적인 문제다. 엄밀히 따지면 법률개정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시행령 개정령에 동포의 개념을 직계비속 2대로 제한하는 한편 관련 타법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재중동포나 재CIS(독립국가연합)동포의 출입국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 개악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재외동포전문과 재외동포연대(추)가 조사한 결과,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개정에 찬성한다는 대답이 77.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기국회 일정을 불과 2주 남겨둔 상황에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됐던 관련 법률조항 자체가 아예 효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들 중 5만여 명은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어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혼란을 피할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위의 국민여론을 감안, 국회가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고치는 길밖에 없다.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 ⑥ '인사관리, 조직행위' 이병철(경영학) 교수

공정한 평가체계가 학습동기 자극해

먼저 학생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많았던 강의로 기억된다. 교수는 강의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이름을 호명하기 때문에 이는 학생에게는 괴로움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알고 넘어가야 할 핵심을 놓치지 않게 돼 참 좋았다.
 이 강의 두 번째 장점은 강의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어렵게 해석되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끔씩 특별한 강의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교수님은 1주 정도는 외부초빙강사(전문가)를 통하여 현장감 있는 강의를 제공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에 대해 자세히 학습할 수 있다. 아울러, 가끔 시청각 자료를 통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교수의 공정한 평가 방법도 이 강의의 장점이다. 철저한 출석확인인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의 충실도를 증진시켰다. 또한 리포트는 리포트대로, 중간시험은 중간시험대로 평가를 공개함으로써 성적의 투명성을 보장했고 다음 평가를 위해 학생이 준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리고 리포트 평가기준 중 중요한 것이 독창성이기 때문에 리포트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한 학습효과도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팀위를 통한 평가도 무시할 수 없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팀간의 경쟁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팀원들 간에 협력성 있는 평가가 마련되어, 결국 팀위를 발휘해야만 하거나 분열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박인호(경영대 경영4)

컴퓨터 효율적 관리 필요

흔히들 대학을 정보화 인재로 양성하는 곳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현실을 뒤돌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 학교는 BSC, 동국관 5층, 문화관 2층, 해화관 2층 등 대부분의 건물에 컴퓨터실이 다 설치되어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 컴퓨터 대수로만 치면 그야말로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컴퓨터 10대 중 2, 3개는 고장난 상태이고, 그 중 1, 2개는 한글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 사용하기엔 '그림

의 떡'인 컴퓨터가 너무 많은 것이다.
 물론 이는 학교측의 책임만은 아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컴퓨터에 음료를 쏟으면 고장나기 쉬워 음료를 반입을 금지했음에도 많은 이들이 컴퓨터실에서 음료를 먹고 있다. 헤드셋도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도 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내팽개쳐 놓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다.
 이제까지 학교는 관리를 소홀히 해 왔고, 학생은 학교 기가지재 보증을 소홀히 해 왔던 것이다.
 '2006년 일류동국'을 90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학내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걸림돌 하나 하나를 제거해야 할 때이다. 컴퓨터 문제라는 걸림돌 역시 방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권승이(사과대 1)

시위의 근본원인 먼저 살펴야

최근 뉴스에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부안원전시위 등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노동자대회에서는 6년 반만에 화염병이 등장하고 농민대회와 부안시위에서도 폭력시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은 마치 시위대가 집회를 벌인 이유는 생각않고 그 방식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
 즉, 무엇이 진정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참여정부가 무엇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인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91

년 이후 노동자 분신·투신 등 열사정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노동자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문제를 노조에 넘기며 역대정권과 다른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손배 가압류로 인해 한달 동안 일한 월급명세서에 적힌 '실수령액 십 여만원'이 이 시대 노동계의 주수이다.
 이렇게 바람으로 몰아가니 화염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싶다. 집회 및 시위를 보면 피상을 보는 것이 아닌 집회를 벌인 근본적인 이유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집시법을 고칠 시간에 집회참가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김성호(경영대 정보관리4)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바른생활 동국남녀(?)
 - 장미애 - substory@hanmail.net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학생회 선거 참여 유도 적절
화폐도안의 가부장성 지적 관심 끌여**

지난호 동대신문은 총학생회 선거, 건학100주년 관련 행사, 학생회비 문제, 동대 학술·문학상 수상작 등 여러 주제를 다뤘다. 특히 사실을 통해 총학생회 선거에 '당신도 주체'라는 말로 참여를 유도한 것은 총학생회 선거에 무심한 학생들이 많은 지금, 적절했다고 본다.
 3회째 연재중인 학생회 관련 기획 기사는 학생들의 회비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 기사였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 제시와 실제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가 부족해 아쉬움이 남았다.
 사회면의 유시민 국회의원 인터뷰는 그를 만나고 싶고, 그의 생각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사였다. 하지만 질문이 틀에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의정활동이나 '비공식 대변인' 등에 대한 질문들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내용이었기에 그의 새로운 면을 찾는 데에는 미흡했다고 본다.
 화폐의 다양한 의미를 풀어나 문화면의 기사는 아이들이 신선하고 편집 또한 독자들의 눈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화폐도안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기사는 무심코 넘겨 버리기 쉬운 가부장적인 사고를 다루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도 더욱 독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내 언론으로서 더욱 정보전달과 여론 수렴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혜진(사과대 신문방송3)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컴공 김영덕 결혼 축하한다. -북한학과 심
 △인문사조비만 한상용 연합뉴스 기자 탄생 축하해요.
 △신방과 96학년 김형환 아기 아빠 된 거 축하해, 잘 키워. -02학년 후배 형석
 △99 해인이 오빠, 생일축하해요. -오빠의 여자친구 S.H
 △근우야 생일축하해 -A4 페인회장
 △기철야! 생일 축하해. -추
 △영표형, 물구나무 짱 된거 축하!
 △형영준! 군입대 축하한다. -상훈
 △정원아~ 결혼 축하해. -P.H.W
 △전자과 박정현야! 생일 축하한다
 △컴공과 99학년 김영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수교과 선배님들 임용고사 꼭 합격하세요. -용현이
 △비대위 열심히 합시다! 종운이의

수고하셨습니다
 △송희야 1년동안 학회 이끌어가는 라 수고 많았어. -98
 △36대 사법대 학생회 후보자님들과 운동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학회! 문학의 밤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03 새내기 열쌍
 △경영대 '우리 숲' 선봉 운동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장산꽃매 02, 01 등 모든 선배님

그리고...
 △용아~ 파마, 잘 어울려.
 △미안하다. BLOG야
 △실! 힘들고 짜증나도 참아. 돈벌어 나 맛있는 거 사줘야지. -H.S
 △퀵·순구·성규·용래 군대 잘 가라. -역교 02
 △동국야 제발 학교 좀 빼먹지 말아라. -부산친구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1/24)	소고기무국 (1500) 치킨가스 (1500) 참치볶음밥 (1500)	참치김치찌개 (1500) 닭도리탕 (1800) 너비아니백반 (1500)	된장찌개 (3000) 만두전골 (3200) 두부김치 (3000)
화 (11/25)	설렁탕 (1500) 꾸꾸미제육볶음 (1800) 갈비경단백반 (1500)	영양갈비탕 (2000) 오징어가스 (1500) 바지락수제비 (1500)	된장찌개 (3000) 콩비지찌개 (3200) 꾸꾸미볶음 (3200)
수 (11/26)	헬쉬어찌개 (1500) 오징어김치볶음 (1500) 탕수육 (1500)	닭곰탕 (1500) 떡볶고기 (1800) 미트볼덮밥 (1500)	된장찌개 (3000) 우거지갈비탕 (3500) 비빔밥 (3000)
목 (11/27)	콩나물국밥 (1500) 닭갈비 (1800) 스파게티 (1500)	소고기해장국 (1500) 김치볶음밥 (1500) 제육볶음 (1500)	된장찌개 (3000) 부대찌개 (3200) 더덕구이 (3500)
금 (11/28)	돈육두부찌개 (1300) 소고기카레 (1500) 청포묵비빔밥 (1500)	된장찌개떡갈비 (1500) 소고기하이리이스 (1500) 치킨샐러드 (1500)	된장찌개 (3000) 보쌈 (3500) 이면수구이 (3200)

■ 금주의 추천메뉴 ■
바지락수제비 (상록원 화요일 식식)
 감자, 호박 등 다양한 야채를 넣고 끓여낸 수제비에 신선한 바지락으로 한층 시원한 맛을 더한 바지락수제비는 초겨울 추위를 달래기에 좋은 음식이다.
 유진영(상록원 식당 영양사)

지난호(1378호)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중 '신형정수도 건설 투고문의 경우 서술된 관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가 편집자의 잘못으로 투고문 뿐만 아니라 대학원보도 기사 등에 대해서도 '논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동의하기 힘든 관점에서 서술했기 때문'으로 지면화 했습니다. 이를 정정합니다.

탈수습기 경험에서 얻은 고민 기사로 독자와 공유할 것



가족들이 추석을 맞아 새벽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던 날 난 도라산행 기차에 올랐다. 명절이 돼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랑민들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였다. 먼 이북 산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분단의 현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신문사를 택한 것은 졸업 후 남들보다 좀 더 값진 대학생활의 경험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주위의 만류가 많았지만 내가 신문사라는 '눈'에 빠진지 벌써 6개월이 됐다. 일주일의 시간을 쪼개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 신문 한부를 만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쌓인 일 때문에 자정이 넘어 귀가하기 일수였고 지친 몸은 학업과 교우관계를

소홀하게 만들었다. 이는 '기자의 길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반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신문사는 그 어느 곳보다도 따뜻한 '사람'의 정과 많은 경험을 내게 주었다. 그동안 도외시했던 사회·문화적 현상에 관심을 갖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도 신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6·13추모대회 참가는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여름방학 때 갔던 농활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처음 나갔던 사진 취재에서 일간지 기자들에게 밀려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지 못했던 것은 추억거리가 됐다. 많은 취재훈련은 앞에 나서기를 꺼렸던 나를 당당한 기자로 거듭나도록 만들었다. 그렇기에 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일간지 기자들과 자리타움을 하고, 모두가 앉아 있는 조용한 회의실에서 카메라를 들고 앞에 나가 셔터를 누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속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지난 6개월간 용서받을 수 있던 수습기자의 명찰을 떼고 내 이름을 단 기사에 책임질 줄 아는 정기자로 거듭나려 한다. 앞으로는 독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꼭 읽을 수밖에 없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치고 힘든 순간을 말끔히 씻어주는 기사에 대한 격려와 쓴소리가 있기에 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기자의 '눈'에 깊이 빠져 있을 것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젊은 광고인들의 '광끼'를 만나다

제10회 애드러쉬 광고전 ... 공간적 제약 아쉬움으로 남아

한 편의 광고 속에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담아 소비자의 기억과 가슴속에 자리매김시키는 일을 광고 용어로 '포지셔닝'이라 한다. 본교 중앙 동아리 애드러쉬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고민과 열정이 담긴 그들의 이야기를 '광고'를 통해 학생들의 가슴속에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색다른 전시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9일부터 3일간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열린 '제10회 애드러쉬 광고 전시회'는 '리포지셔닝'을 주제로 외부 공모전 수상작 및 동아리 학생들의 작품을 기획, 인쇄, 전과 부문으로 나누어 전시했다.

먼저 전시장에 들어가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스토리 보드'에서는 애드러쉬 학생들이 공모전을 위해 준비해왔던 광고 제작 과정과 대학생들만의 독특한 개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 중 'IG애드 공모전' 출품작인 '갈지만 다르다'는 대학생들이 외모에 치중하는 현실을 광고에 담아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또한 '이산가족'이라는 제목의 광고는 50여년만에 만난 아들과 어머니가 슬픔으로 인해 말을 잊지 못하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떠 줌으로써

두 모자의 마음이 전해짐을 표현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전시회를 관람한 이규혁(반도체과1) 군은 "그동안 완성된 광고를 보는 것에만 그쳤는데 한편의 광고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고민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03 러브미 광고 마케팅 공모전' 외부 수상작 협찬으로 타 대학 학생들의 작품까지 만나 볼 수 있어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희(기계2) 회장은 "2년 만에 열려 된 행사인 만큼 더 많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서관 내 전시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소음을 낼 수 없어 영상물 광고의 경우 음향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는 전시회의 특성을 고려해 전시 장소를 결정하는데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끼를 충분히 발산해 낸 이러한 내실 있는 전시회가 앞으로는 더욱 '열린' 공간에서 열려 학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문화일기 내 생애 초그의 ○○



김 한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연극 - 이맘쯤 떠오르는 희극 세익스피어 '겨울이야기'

십일월이 마지막 잎새들을 떨구어 가는 이맘 때면 세익스피어의 말기극 '겨울이야기(The Winter's Tale)'가 생각난다. 런던 테임즈강 유역 과거 세익스피어 극 전용극장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같은 모습, 같은 이름으로 400여년 만에 세워졌던 오늘의 지구(Globe)극장의 개관 기념 레파토리로서, 1997년 이 극이 올렸던 것은 의미로웠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지구촌 각 곳에서 모여든 관객들 앞에 막이 올랐을 때 드러난 '겨울이야기'의 무대는 당대처럼 빈 무대였다. 바닥은 자주빛에 가까운 짙은 색이었고, 등장인물들이 걸쭉한 헝거운 무명의상들 역시 무대를 둘러싸고 관객하던 입석객들이 디디고 선 땅 색깔을 닮은 짙은 흙색이었다.

비를 맞으며 구경하던 이들 입석객들 중 무대 가까이 서 있던 관객들은 한바탕 연가를 마치고 제 역할이 끝났을 때 무대 가장자리로 나와 객석사이로 퇴장하려고 기어 내려오는 배우들을 안아 내려주고, 또 그들이 등장시간이 되어 무대로 기어오를 때는 손바닥으로 발을 받쳐주고 등을 떠밀어 올려주곤 했다. 그 '뜨뜻'하던 손길이 전달해주는 즐거움이란, 살아 있는 사람인 배우와 살아 있는 사람인 관객이 한 공간에서 호흡하며 빛어지는 현장예술로서 오직 연극에서만 가능한 해피닝이 제공해주는 선물이었다.

이 극은 전반부 세 막이 비극적인 전개를 보여주다가, 나머지 두막에서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비희극'인데 희극으로 분류된다. 저 대 전환의 목적인 3막 끝

에서 양치기와 그의 아들 바보(Clowm)-결코 이상화되지도 않고 감상성도 가미되지 않은 단순 소박한 '촌놈들'가 답답하게 주고 받는 대화는, 두고 두고 잊을 수가 없다.

비보: 금방 배가 뭇대로 달남에게 구멍을 내놓는가 했더니, 금방 맥주통 속에 빠진 콜크 마개처럼 거품 속에 팔짝 삼켜졌어... 또 땅에서 벌어진 일인데... 꿈이란 놈이 나리의 어깨 뼈를 찢어 갈기더군... 그 나리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름은 엔티거너스, 귀족이라고 했어...

양치기: 지독한 일이구나. ...하지만 애야, 고마워하지. 넌 죽어가는 것을 만났구나, 나는 갖태어난 것(아가)을 만났거든.

비보: ...꿈이란 놈이 가버렸는지, 그 나라를 얼마만큼 뜯어 먹었는지 보고 올게. 꿈은 배가 고프지만 앓다면 절대로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아. 그 나라가 먹히다 남은 것이 있다면 물어줄테야. (3막2장)

있달아 '시간(Time)'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등장하여 직접 관객을 향해 말한다: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나는... 시간의 이름으로 나의 날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날쌐다고 부디 책임까지 마십시오... 법률을 뒤엎고 단 한 시간 사이에 습관을 심고 파괴하는 힘을 가진 이 자를...(4막1장)

문화단신

스크린쿼터 현법 유지 논의

지난 19일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 투자협정 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가 면담을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으며 양측은 일방적인 쿼터 축소는 단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스크린쿼터 논란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노 대통령이 임기 내 현행 유지를 확실하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측은 "미국 영화 업계에 공식 간담회를 제안해 쿼터 축소 없이 양국의 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수 사물놀이때 공연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탄생 25주년을 기념하는 '난장 페스티벌'이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호암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김덕수 놀이패의 25년간 활동을 뒤돌아 보며 풍물, 굿 등 사물의 근간이 된 모든 종류의 음악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2일부터 4일까지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그룹 '레드선'이 함께 펼치는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이 진행된다. 그리고 5일부터 7일까지는 퓨전적 요소를 끌어내고 '오리지널 사물놀이'의 정수를 선보이는 '사물놀이 1978-2003'으로 꾸며진다.

문의 762-7300

서울독립영화제 2003

'서울독립영화제 2003'이 다음달 5일부터 열흘간 동숭아트센터 동숭홀과 하이퍼텍나다에서 열린다. 독립영화의 현실을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는 '거침없는'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진행될 예정이다.

상영작은 단편·중편·장편으로 이루어진 경쟁부문과 국내·외 초청부문으로 나뉘어진다. 개막작은 디에고 레르만 감독의 '어느날 갑자기'이며 해외 초청작은 기획전인 '비바! 라틴 시네마'에서 7편의 브라질 영화와 3편의 아르헨티나 영화가 상영된다.

또한 서울독립영화제는 올해부터 온라인 상영회를 실시해 다음달 4일까지 지난해 수상작들을 서울독립영화제 공식홈페이지 등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의 362-9513

▶지나호 문화테마면 '화해에 담긴 문화 풀이보기'의 총론은 필자의 사견임을 알립니다.
▶137호 '퍼즐 - 동대신문이 보인다' 정답 당첨자는 김성규(경제60졸), 손명수(중문3) 씨입니다.

매체비평

음반 편

인형의 파업

“남녀 차별이 만든 ‘인형’ 반란을 노래하다”



일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차별을 노래로 풀어낸 앨범 '인형의 파업'.

“하루종일 정신없이 커피만 탔지. 도대체 난 여기 왜 있는지. 미쓰리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라는 말 그런 칭찬 필요없어 니가 타먹어”- ‘커피가 싫어’ 중에서-
여성의 시대가 왔다고들 한다. 여성

의 감성과 섬세함이 높게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들 말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우리의 세상은 아직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서 승진에서는 배제된 채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 속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현실을 알리면서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래를 만들겠다고 가사공모전을 했을 때, 잠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아졌다. 매일 그리고 하루종일 커피만 타야하는 현실, 여자와 남자 사이의 무엇이 다르기에 똑같이 배우고 꿈을 꾀도 여자에게만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삶

의 고단함, 슬파라라 안마해라 추근대는 성희롱 상사들에 대한 경고, 결혼하면 비정규직·임신하면 계약해지되는 현실에서 아이조차 낳을 수 없다는 외침, 어머니의 꿈에 대한 물음과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 이 앨범의 가사들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도 여성으로, 노동자로서 살아가기에 대한 고단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놓지 않고 잡고 있는 작은 희망의 끈들까지도.

노래를 듣고 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말 속이 후련하군요.” “좋아요. 이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풀리겠다.” “희망과 용기뿐 아니라 인생의 힘이 되는 것 같아 참 기분이 좋네요.” 노래는 작지만 힘이 있다. 현실에 대한 통쾌한 반론과 휴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미래를 꿈꿀 수도 있게 만들어준다.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생각을 바꾸어 놓으리라는 기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은 노래 한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의식전환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커피? 니가 타먹어!”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선전부장

시들어가는 우리말 새 싹을 트워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말과 글은 힘센 미국말에 밀려 죽어가고 있다. 방송과 신문에서, 책과 거리에서 미국말에 밀려 흔들리니 국민정신 또한 흔들리고 나라까지 혼란스럽다. 온 국민이 외국말 쓰기를 줄이고 우리말을 살리기 위해 힘쓰지 않아 우리말은 말할 것 없고 나라와 겨레의 앞날까지 어둡게 되었는데 정부와 지배층은 오히려 미국말 숭배를 부채질하고 우리말글 쓰기를 방해하니 걱정이 많다.

국어독립을 꿈꾸다

우리는 지난 수천년 동안 우리말은 있으나 우리 글자가 없어 중국의 글자, 한자를 빌려 쓰다 보니 말과 글이 다른, 절름발이 말글살이를 했고 우리 국어는 독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5천 년이던 긴 역사를 가지고도 우리말로 된 빼어난 문학작품 하나 없고 자주문화가 빈약했다. 557년 전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이 우리 글자 한글을 만들고, 100여 년 전 주시경 선생님이 같이 닦아 놓은 것을 지난 50년 동안 정부와 국민이 즐겨 쓰고 빛내어 온 국민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됐다. 공문서와 교과서를 우리말글로만 쓰기 시작

해서 신문과 소설, 박사 학위 논문도 우리 말글로만 쓰고 있다. 이제 일본식 한자혼용만 하지 않고 우리말 다듬기에 힘쓰면 좋은 문학작품도 나오고 나라 말글이 하나된 국어독립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외래어의 점령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회사 이름과 상품 이름은 말할 것 없고 사람 이름까지 미국 말글로 짓고 있다. 일제의 강제 창씨개명을 타하면서 스스로 미제 창씨개명에 열심이다. 짓덕이 애까지 우리말 배우기보다 미국말 공부에 더 열심이니 우리 학술 연구, 학문 발전은 뒷전이다. 외국말도 배워야 하지만 제나라 말은 헌신 꼭 보듯 하고 남의 말글 배우기에 지나치니 큰 문제인데도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 학자, 언론인, 기업인들은 아무 걱정이 없다. 오히려 미국말 조기교육 정책을 시행하더니 미국말을 우리 공용어로 하자고 하고 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듯이 일반 국민이 우리말을 지키고 살리자고 나섰다. 때를 같이 하는 이가 많지 않다.

게다가 중국 한자 숭배자들까지 덩달아 나서서 한자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한자조기교육과 일본식 한자혼용 시대로 되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답답하고 심란하다. 영국도 우리의 한문과 같은 라틴어로부터 영어가 독립하면서 세익스피어 같은 작가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독일은 괴테, 이탈리아는 단테가 나왔으며 그 나라의 국어 발전과 국어 독립이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한글에 날개 달기

우리로 한글을 살려 쓰면서 수 천년 간 빌려 쓴 한문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주문화를 꽃피우고 힘센 나라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글이 국민을 똑똑하게 만들었고 그 바탕으로 세계가 놀랄 정도로 경제성장과 민주국가로 빨리 이를 수 있었다. 우리말 속에 끼여든 외국 말글과 외국말투를 쏙 빼내고 깨끗하고 바른 말글살이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세계 으뜸가는 글자인 한글이 있다는 건 복받은 일이고 자랑이다. 컴퓨터 전자통신시대에 우리말과 한글이 더욱 빛나고 있다. 외국인을 상대하거나 어쩔 수 없는 때가 아니면 외국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한글로 국어 독립을 이루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시대 사명이고 꿈이며 한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 공동대표 이대호

‘네티아’ 김우석 씨를 만나 “영어 일색 인터넷 주소·이메일부터 바꿔야”



기업 '네티아'는 한글인터넷주소를 개발하는 등 영어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 변화를 시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네티아의 마케팅부장 김우석 씨를 만나 한글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한글인터넷주소 개발 이유는.
 - = 최근 행사나 삼정 이름의 대부분이 영어인 것처럼 기존 인터넷주소도 모두 영문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모르는 어린이나 노년층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 그러나 사실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과학적인 언어이다. 사람들이 한글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언어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한글인터넷주소 개발은 한글의 편리함과 우수성을 살려 이를 인터넷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 = 한글인터넷주소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영어를 몰라 정보습득에 소외됐던 이들이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어 철자를 하나하나 말하는 것보다 한글로 한 단어를 말하는 것은 시간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이익이다.
 - 이는 기업의 브랜드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영문 이후 세계 최초의 자국어 인터넷 주소이기 때문에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도 기여했다고 본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 지난 7월부터 한글이메일주소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영어를 몰라 이메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정보 소외현상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개인이름의 한글인터넷주소 등등록이 부과되는 비용의 50%를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통일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리고 한글날의 국경일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우리나라 거리에 우리말은 없다?

외래어 간판 증가... 독특한 한글 간판 이목 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이름'이 그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듯 상징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간판' 역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간판은 그 시대 문화를 대변해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간판들이 점차 외래어로 몰리고 있어 마치 영어권 국가에 온 듯한 착각마저 주고 있다. 본교 주변 상점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즐겨 찾는 주점이나 식당들은 대부분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문화공간인 PC방, 미용실, 커피 전문점 등은 대부분이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글 표기가 가능한 상호명도 우리말을 영어로 고쳐 표기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영(경행2)양은 “대학 주변인만큼 대학생들만의 문화를 표현하면서도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순수 우리말 간판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을 대표하는 장소라 할 수 있는 명동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한 카드회사의 조사결과 명동 2천여개 상점의 외래어 간판 비중이 53.1%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개중 1개꼴의 간판이 외래어이기 때

문이다. 이는 젊은이들을 주요 소비층으로 하는 의류·잡화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결과로 분석되지만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장소인 만큼 순수 우리말 간판을 이용해 우리 문화를 표현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외래어 간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인사동의 경우 외국에서 들어온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조차도 한글 간판을 사용하는 등 대부분의 간판이 한글로 이뤄져 있다. 또한 한 찻집 이름인 '모깃불에 달 끄슬리다'와 같이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독특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간판들도 많이 자리잡고 있다. 한 상점 주인이 “간판 명이 특이하다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말한 것처럼 단순한 영어 간판보다 독특한 한글 간판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더욱 끌기도 하는 것이다. 간판은 현재를 보여주는 얼굴과도 같다. 밤이 되면 그 빛을 더하는 간판에서 '남의 것'이 아닌 진정한 '우리 것'을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메아리

두 땅의 상처

▲ '전쟁'이 시작된 지 8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총성과 폭발음이 끊이지 않는 슬픔의 땅, 이라크. 지금도 흐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은 이라크의 상처로 굳어지고 있다. "이라크의 질서 회복을 위해 우리의 임무는 고귀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부시 대통령. 그의 말따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미군은 게릴라 공격을 펼치는 이라크 저항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대대적인 폭격

을 퍼붓고 있다. 정작 이라크인들의 눈물과 상처에는, 평화를 외치는 전세계인들의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 도대체 저 곳은 이라크의 어느 지역인가. 치솟는 불길, 피를 흘리며 실려 나가는 사람들. 해폐기장 반대 시위가 있었던 지난 19일, 전북 부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쟁'을 연상케 했다. 정부는 군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인구 7만여 명의 소도시

에 8천명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했고, 모든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사실상 계엄" 상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부안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상처만 커가고 있다. ▲ 부안사태가 이처럼 파국으로 치달은 데는 정부의 안이하고 성의 없는 대응이 한몫 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과 과정은 생략한 채,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명

분을 앞세워 환경 파괴를 초래할 위험도 제기되는 사안을 밀어붙였다. 가가스로 대책위가 주민투표를 마련해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군민들의 분노가 격렬한 시위로 나타난 것이다. ▲ 부안지역의 치안 확보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목표는 질서를 회복하고 (해폐기장 설치를 위한) 설득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노무현 대통령 말따라, 막강한 경찰력 앞에 군민들

의 저항은 사실상 너무나 무력하다. 부안 군민들이 생업도 포기하고 시위를 시작한 지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그들의 눈물과 상처에 둔감할 뿐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라크 전쟁으로 비난과 분노의 화살 앞에 직면하게 된 부시정부처럼 궁지에 몰리는 것은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한보라 편집장
hviolet@dongguk.edu